

LNT 소개

▣ LNT란 무엇인가?

LNT란 Leave No Trace란 말의 약자로 우리 말로는 ‘흔적 남기지 않기’로 불리고 있다.

야외에서 맘껏 아웃도어를 즐기며 스트레스를 풀고 호연지기를 기르되, 의식과 책임감 있는 행동을 가르침으로써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자연보호 프로그램이다.

일종의 아웃도어 윤리교육이라 보면 된다.

▣ LNT의 역사

- ▶ 1960년대 미국에서 LNT란 개념이 태동하여 정부기관(산림청, 국토관리부, 국립공원관리청 등)이 주도하여 공원을 찾는 방문객을 상대로 교육 실시
- ▶ 1990년 미국 산림청이 NOLS(National Outdoor Leadership School)과 연계하여 교육프로그램으로 발전
- ▶ 1994년부터 LNT센터를 설립하여 LNT운동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비영리기관으로 정부기관과 NGO, 세계 각국의 파트너 조직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활동 중임.

▣ LNT의 교육의 필요성

- ▶ 아웃도어 인구의 급증, 아웃도어 활동의 다양화가 세계적인 추세로 등장하여 자연보호를 위한 규제 일변도의 정부 정책 구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 ▶ 자연보호를 위해 방문객을 차단하는 방식 대신 방문을 허용하되 방문객에게 그들의 방문이 자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려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아웃도어 윤리교육이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적 대안임.
- ▶ 방문객 외에도 전국민을 상대로 자연보호의식과 책임감을 전파
- ▶ 미래의 사용자인 어린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아웃도어 윤리 교육이 필요

▣ LNT의 교육의 종류

- ▶ 워크샵(Workshop): LNT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 과정, 4시간 강의.
- ▶ 트레이너(Trainer): 워크샵을 진행할 수 있는 자격 부여.
1박 2일 일정으로 16시간. 전 세계 5만명.
- ▶ 마스터 에듀케이터(Master Educator): 워크샵과 트레이너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자격 부여. 5일 과정(3박 4일은 야영하며 필드 교육).
미국에서만 실시, 전 세계 9천명.

▣ 강사 프로필

▶ 이남기

- 2008년 미국 LNT 마스터교육 이수
- 캐나다 밴쿠버거주
- 사진작가 · 여행가
- 대우조선 캐나다 지사장